

막 오른 통합특별시장 선거...초반 정책 대결 '후끈'

6·3 지방선거 D-91

강기정, 전남·광주 자생경제권 구축
김영록, 준비된 발전 전략 '존재감'
이개호, 에너지산업 확대 핵심과제
신정훈, '신남방 경제중심도시' 목표
민형배, 5대원칙 기반 권역별 특화
주철현, 동부권 산업벨트 강화 방점
정준호, 대기업·첨단산업 유치 강조
이병훈, 성과중심 행정 리더십 구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로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사실상 막을 올린 가운데 선거전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간 정책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후보군 8명은 통합 이후 산업 구조 재편, 에너지 전략, 권역별 분업, 기업 유치 등 정책 구상을 잇따라 제시하며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군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개호·신정훈·민형배·주철현·정준호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 등 총 8명(현역단체장·국회의원순수)이다.

강기정 시장은 AI·미래산업 등 '광주 중심 성장축'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 중심 AI 산업 허브

강화와 미래차·모빌리티 산업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인(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인(In) 광주, 인(In) 전남'을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전남·광주 통합을 통한 자생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게 강기정의 구상이다.

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의 정책 대결은 김영록 지사가 주도하고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준비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김 지사는 2월에만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반도체 3축 클러스터를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비전'(2월2일), '대기업 지방투자 150조+300

조 첨단산업 유치'(2월5일), '광주와 전남 서부·동부·남부권 등 4개 권역 3+1축 산업 대부흥 전략 Y-4 노믹스'(2월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5 문화수도 비전'(2월20일)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4선)은 에너지 자주권과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 해상풍력 중심 에너지산업 확대를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도입을 통해 농어촌 안전망을 강화하고 광주 AI 산업 육성과 함께 동부권 경제·문화 허브, 서남권 재생에너지·해양 물류 허브와 등 권역별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3선)은 통합 특별법이 통과하기까지 국회행안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남광주특별시를 '준연방제 수준

의 분권형 자치정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를 '신남방 경제중심도시'로 명명하고 인구 30만명, 1인당 소득 5만달러, 300조원 투자 기반 완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재선)은 성장통합·균형통합·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을 전남·광주 통합 5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권역별 특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 모델 도입 구상을 내놨다. 공공재정과 시민 자원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하고 확보한 지분 수익을 '시민 생애소득' 체계로 환원하겠다는 전략이다. ▶2면에 계속 /김재성·변진기 자

'검은 화요일' 코스피 7% 폭락 중동발 쇼크 역대 최대 낙폭

중동발 전면전 위기에 국내 증시가 역대급 충격에 빠졌다. ▶관련기사 13면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p(7.24%) 폭락한 5,791.91로 장을 마쳤다. 지수 기준 역대 최대 낙폭으로 증가 기준 6,000선이 험없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 폭락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고조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한 결과다. 외국인인 5조1천731억 원 어치를 쏟아내며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도 가세했다.

개인이 5조8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다. 거센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가 9.88%, SK하이닉스가 11.50% 급락하며 이른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고지를 내줬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따른 유가 상승 기대감으로 정유와 해운주는 급등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코스피는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와 비교해도 낙폭이 컸다. 그동안 압도적 1위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대외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Today

남구 사회경제적 흥보관 운영 '주먹구구' 6면

'전설의 보컬' 정동하 알리 빛고을 무대 14면

두터워진 불펜 뎀스 진화하는 '필승조' 16면



"청년 정착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권 전남도의회 의장이 3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부흥 시대' 열린다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

광주시·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보고회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한 시·도민의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했다. ▶관련기사 2·3면

광주시·전남도는 3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를 개최해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보고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시·도의회 의장, 범시도민협의회 위원, 시·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대 ↑

姜시장 "일자리 많은 완전고용 도시로"

金지사 "4대 권역 'Y4-노믹스' 구체화"

도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브리핑 ▲시·도민이 기대하는 변화 ▲내가 바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 메시지 발표 ▲미래 다짐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보누리 투표로 진행된 '시·도민이 기대하는 변화'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와 기업 유치, 인

구 감소 완화, 청년 정착,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순으로 응답이 집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확인했다.

분야별 시·도민 대표 10명은 '내가 바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통합을 계기로 청년이 정착할 일자리 도시, 첨단산업과 1차 산업의 조화를 통한 균형있는 발전,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구가 '경제와 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난 1월2일 국립5·18 민주묘지 민주신문에서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전남광주대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99일 만인 이날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00만명, 지역내 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한다. 전국 5위 인구, 3위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시·도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통합 기회를 잡았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완전 고용의 도시를 만드는 그날까지 특별시민과 최선을 다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의 3+1축 4대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하고 첨단산업부터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까지 고루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봉선동, 남구청)

이점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시통발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